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공기업 경영평가와
연구개발비간의 관계분석

2015년 11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김태형

국 문 초 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공공기관의 객관적인 평가형태로 자리 잡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이익지표 비중과 공기업의 경영자가 평가결과를 잘 받기위해 해당 공기업의 이익 등을 부풀리고자 이익조정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는 공기업 경영자의 인사 및 금전적 보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따라서 경영평가의 평가항목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개년도 98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방법 중 연구개발비의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여부에 대하여 측정하였으며, 경영평가 이익지표의 가중치는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에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관련 지표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연구개발비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또한, 연구개발비 비중에 따라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상위 50%인 공기업군과 하위 50%인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공기업군별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비율을 측정하여 본 결과, 연구개발비 비중이 상위 50%인 공기업군이 하위 50%인 공기업군에 비해서 연구개발비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유의하지는 않지만 경영자의 교체가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비율에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한다면 보다 유의적인 통계분석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공기업이 가진 공공성으로 인해 단순히 재무적인 성과로만 측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본 연구의 결과 경영평가 이익관련 지표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후속연구 등을 통해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기대한다.

주요어 : 공기업, 경영평가, 연구개발비,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학 번 : 2014-23610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제 1 절 이론적 배경	6
1. 공기업 경영평가	6
2. 이익조정	11
3. 연구개발비	14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6
1. 이익조정과 관련된 연구개발비 선행연구	16
2. 공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18
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설계	20

제 1 절 연구개요	20
제 2 절 연구가설	22
제 3 절 변수 정의	24
1. 종속변수 : 연구개발비 자산화율	24
2. 독립변수 : 이익지표 비중	25
제 4 절 연구모형의 설계	27
제 5 절 데이터 수집	30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33
제 1 절 기술통계	33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35
제 3 절 가설검증 결과	37
제 5 장 결론	42
참고문헌	46

표 목 차

[표 1] 이익관리의 방법	11
[표 2]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내용	25
[표 3] 공기업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26
[표 4] 가설 1의 검증모형의 변수 정의	28
[표 5] 가설 2의 검증모형의 변수 정의	29
[표 6] 최종표본수	31
[표 7] 기술통계량	33
[표 8] 상관관계 분석결과	36
[표 9] 다중회귀 분석결과 (가설1)	39
[표 10] 다중회귀 분석결과 (가설2)	41

그 립 목 차

[그림 1] 경영평가 항목 중 이익관련 지표 비중 ...	4
[그림 2] 공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비중	3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서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즉, 공공기관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나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정부기관과 동일한 공익성을 가짐과 동시에 기업체라는 측면에서 수익성과 자율성까지 가진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방만한 경영, 인사비리, 도덕적 해이 심각 등 비효율적인 운영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1983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경영평가 제도를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하

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평가 결과로 측정되는 경영성과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자의 연임 또는 해임과 같은 인사상 조치가 가능하고 경영자 보상과 관련하여 기본급의 인상 또는 삭감, 성과급 지급률 등이 결정된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성과측정지표는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 공통 지표와 고유 지표, 계량적 지표와 비계량적 지표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서 성과측정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별 가중치와 지표의 수를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본 논문에서 살펴볼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또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공기업 I)으로,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준시장형 공기업(공기업 II)으로 세분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익을 조정하려고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Watts and Zimmerman(1986)은 경영자 이익조정 유인으로 첫째, 자신의 보상을 최대화하려고 이익을 조정한다는 가설(bonus plan hypothesis), 둘째, 회계수치에 근거를 둔 부채계약이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회피하고자 이익을 조정한다는 가설(debt covenant hypothesis), 셋째, 높은 정치적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클 경우 현재의 이익을 미래의 기간에 이연시키는 조정을

한다는 가설(political cost hypothesis)로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경영자는 법인세 등의 세금절감, 기업의 주가와 자본비용 등에 영향을 주는 이유로 이익 조정을 하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Healy(1985)는 “경영자는 자신의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이익조정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경영자는 자신이 받을 보상이 기업의 순이익의 최대치와 최소치 사이의 일정범위에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받을 보상을 최대화 하려고 할 것이며, 순이익이 최대치보다 클 경우나 최소치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음 회계 기간의 순이익을 증가 또는 하락시키는 조정을 함으로써 자신이 받을 보상을 최대화시키고자 한다. 이와 같이 공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재무적 성과(주가, 회계적 성과 등)를 근거로 한 목표이익에 따른 보상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의 경영자는 자기이익의 최대화를 위해 이익조정을 할 유인을 갖게 된다(Healy and Walen 1999).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공기업은 기업의 수익성만을 중요시하게 되면 공기업의 주요역할인 공익성 실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공익성만을 강조하게 되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저조한 경영실적을 보이면 경영자는 무능력한 경영자로 비추어지고 공기업 역시 방만한 경영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정치·사회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경영평가 결과가 경영자의 연임이나 해임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부예산의 지원 및 삭감 여부, 평가순위를 통한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 차등 산정 등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공기업의 경영자는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성과를 조정하고자 할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경영자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측정지표

중에서도 주관적 성과측정지표는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의 실현가능하고 안정된 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량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량적 성과측정지표를 조정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경영자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이익조정을 위해서는 이익과 관련된 성과측정지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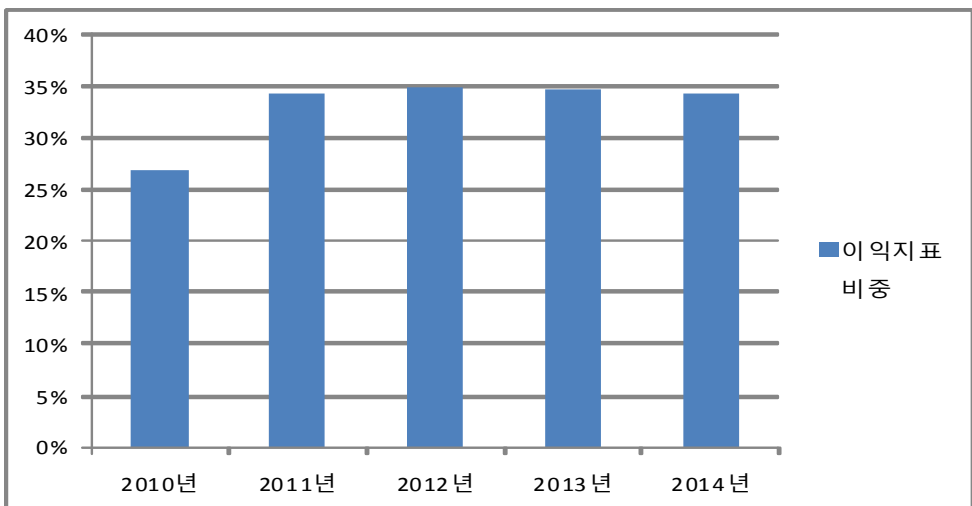
이러한 이익조정과 관련하여 Gunny(2005)는 이익조정의 수단을 분식회계,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회계처리), 실제 활동에 기초한 이익조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기업 경영자는 이익조정을 통해 자신의 성과를 최대화 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자의 보상을 결정하는 경영평가의 성과측정지표들의 특성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분식회계를 제외하고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과 실제 활동에 기초한 이익조정 중,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 중 연구개발비 항목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의 경영평가 항목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연구개발비 금액이 없는 공기업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의 주제는 공기업의 경영평가 항목 중 이익관련 지표가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통한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기간동안의 경영평가 항목 중 이익지표 비중 변화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경영평가 항목 중 이익관련 지표 비중



선행연구들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개발비와 이익조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에 한해서 분석을 하였다. 이는 상장이 된 공기업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공기업에 대한 일반화가 문제가 된다. 둘째, 공공기관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에 있어서 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통한 이익조정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었으며, 연구의 방법론과 범위, 구성내용을 나타내었다.

제 2장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내용을 정리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 이익조정,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제 3장은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의 설계에 대해 나타내었으며,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 설정 및 가설 검증을 위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연구모형을 나타내었다.

제 4장은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분석결과, 그리고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들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배경

1. 공기업 경영평가

정부에 의하여 설립, 관리되고 있는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국가경제와 국민의 복리, 이익 등을 위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에 정부의 예산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만큼의 수익성을 창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으며, 공기업 경영자들은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로 인한 책임의 부재, 공기업 부채증가와 방만경영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경영의 비효율성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이익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공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살펴보면, 공기업의 성과지표는 계량적인 지표와 비계량적인 지표로 나눌 수 있으며, 계량적 성과지표에는 공기업의 수익성 및 생산성 향상 실적 등 상

당한 부분들이 이익지표에 근거하여 평가되고 있다. 변종국(2008)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일반기업의 경영목표와는 다른 점이 있지만 현대에는 공기업에게도 일반 기업처럼 이익추구가 강조되어서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익을 중요시하는 민간평가방식이 도입되는 추세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성과를 이익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은 단순한 이익의 증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공기업의 수익성과 생산효율성 등을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으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기업이 공공성과 동시에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공기업마다의 제각기 다른 설립목적 및 주관적 목적 적합성에 의한 평가가 가지는 한계를 계량형태인 이익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점 등은 공기업의 평가에 있어서 이익지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을 두고, 공기업의 국가경제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는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제도를 모색하였고, 1983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으로 본격적인 경영평가를 시작하였다. 그 후 2004년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지속하여 왔다.

경영평가의 근간이 되는 법체계의 변천에 따라 경영평가제도는 4기(1기 : 1983~1998년, 2기 : 1999~2006년, 3기 : 2007~2010년, 4기 : 2011년 이후)로 나눌 수 있다(장지인 등 2014).

경영평가 1기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킨 시기였다. 이 시기에 개발된 경영평가 모형은 명확한 논리적 근거하에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등급 등이 마련되었고 오늘날 경영평가의 근간이 되었다.

경영평가 2기는 평가제도를 확대, 적용시킨 시기이며, 산하기관의 평가가 도입된 것을 비롯하여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와 공공기관 혁신평가가 도입되었다.

경영평가 3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자체의 선진화 또는 글로벌화에 대해서 강력한 주문이 있었으며, 경영품질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알려진 말콤 볼드리지 모형을 벤치마킹하였고 선진화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포함시켜서 공공기관의 자체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마지막 4기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평가’ 개념이 대두되었다. 사업의 다각화와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감대에 적합한 평가체도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제도의 효율화, 단순화, 특성화를 목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이 2011년 평가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제도의 분리 여부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간에는 설립 목적과 대상 사업의 특성, 대정부 관계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표준화 하는 것은 평가의 형평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의 이원화된 평가체계의 통합, 일원화 여부이다. 기관평가가 당초

경영진의 노력을 통한 경영성과를 측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통합,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평가지표체계의 특성화와 표준화 문제이다. 경영평가지표체계의 표준화가 경영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지만, 각 기관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 확보, 경쟁성 확보 등에서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평가지표체계를 설계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장지인 등 2014). 또한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경영평가의 수검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존립 목적인 공익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라영재(2013) 등은 현행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로, 공공성과 효율성 간의 균형성 문제로 이는 어느 하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나 현재까지의 정책방향은 효율성 중심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적어도 공공기관의 공공성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정책의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자율성 부족이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관리되어야 할 것이지만, 기업으로서 필요한 자율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의 국민과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면서 공공기관의 자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경영평가주기의 연장으로 기관장의 경우 현행 1년 단위의 평가를 3년 단위로 연장하자

는 주장이 있다. 네 번째로, 경영평가지표는 공공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지표로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리더십, 인적, 재무 관련 지표는 실적을 반영하기 용이한 반면에 국민평가와 사회적 기여지표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량실적 중심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중소형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으로 성과급 지급률과 규모에 대한 것이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익조정

이익조정이란 좁게는 경영자의 이익관리로 설명될 수 있으며 넓게는 기업의 경영자가 특정한 사익을 목적으로 재무보고 과정에 개입하는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Schipper, 1989).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GAAP을 위반하는 이익 조작(Earnings manipulation)과는 구분될 수 있다.

[표 1] 이익관리(Earning Management)의 방법

경영의사결정을 통한 이익조정 (현금흐름활용)	영업의사결정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광고선전비 등 재량적 비용항목 지출시기 및 매출시점 조정 등
	재무의사결정		사채의 조기상환 등
	투자의사결정		보유자산의 매각을 통한 처분손익 인식 등
회계적의사결정을 통한 이익조정 (발생액 활용)	GAAP 준거	회계원칙 변경	감가상각방법, 재고자산평가 방법 등
		회계추정 변경	자산 내용연수·잔존가액 추정, 충당부채의 추정 등
	GAAP 위반		고의적인 회계오류 및 조작

* 자료 출처 : 장석오·노현섭·김정찬(2003), “이익관리검증방법의 평가 및 개발”

[표 1]은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현금흐름 활용방법과 회계상 발생액(Accrual) 활용 방법으로 이익관리(Earning Management)를 구분

한 자료이다. 현금흐름 활용방법에는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등 비용항목 등의 지출시기 및 매출시점을 조정하는 방법과 사채 등의 상환시점 등 재무적 의사결정에 의한 방법, 보유자산의 매각 등 투자 의사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회계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범위 내에서 회계원칙(정책)과 추정을 변경하는 방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위반하는 회계적 조작(분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성과(이익)조정의 동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계약상 동기

경영자 보상가설에 따르면 경영자는 자신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이익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익관리를 하고, 실적이 목표보다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익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익관리를 하려고 한다(Healy, 1985, McNichols & Wilson, 1988 등).

한편 부채계약가설에 따르면 기업은 부채계약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익조정을 할 수 있다. 대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부채계약은 회계적 수치를 기반으로 제약조건들이 설정되고, 이에 따라 기업은 제약조건들을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계약상 불이익 회피를 위하여 이익조정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DeFond and Jiambalvo, 1994).

(2) 규제 또는 정치적 동기

기업들은 특정 규제를 회피하거나 또는 규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익을 관리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됨으로써 받는 혜택이 크다면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자산규모 또는 인원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인세최소화 가설에 의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기이익을 이연하는 등의 이익조정을 할 수 있다(Scholes 1992, 정규언 1993, 박춘래·김성민 1996 등). 한편 정치적 비용가설에 따르면 기업은 높은 사회적 영향과 관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익조정을 하려는 동기 유인을 가질 수 있다(Watts & Zimmerman, 1986).

(3) 자본시장 동기

자본시장에 있어서 주주 및 투자자 등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하여 기업이 공시하는 회계정보 등에 의존하여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하는 공시 회계 정보(보고 이익)를 조정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이건열 1999, 심동석·안창호 2004 등).

3. 연구개발비

2002년 12월 기업회계기준이 기업회계기준서로 변경되면서, 연구개발비에 관한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다. 이전에 발표된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해석과 유사하지만 무형자산의 정의 및 개발비 자산화 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개발비 중에서 자산화 할 수 있는 지출의 요건은 신뢰성 있게 개별 구분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 지출로서, 무형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완성해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 및 이를 완성할 능력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라고 서술하였다.

2011년 11월에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38호 무형자산에서는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당기비용처리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출일 경우 당기비용처리하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세가지 조건으로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시하고 있다.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이 기업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법적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자원에 대한 통제란 그 자원으로부터 미래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해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이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그 자산의 사용

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산처리되는 경우와 당기비용 처리되는 경우를 해당기준이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선별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래경제적 효익유입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이익조정과 관련된 연구개발비 선행연구

연구개발비를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Baber et al.(1992)은 이익목표치의 달성동기가 높은 기업이 연구개발비 지출의 증감을 통해 이익조정을 수행하는지 조사하였다. 즉, 손실 및 이익감소를 피하기 위해서 경영자가 실제로 연구개발비 지출을 줄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룬 기업은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기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자도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 지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광현(1996)은 기업의 이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자들이 당기 연구개발투자금액을 조정하거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당해연도 이익이 기대했던 이익보다 작은 경우, 연구개발 지출을 자산화함으로써 이익을 증가시키는 행태를 발견하였다. 김승용(1996)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익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연구개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통해 이익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문태 등(2005)의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선택의 재량성과 이익조정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순이익의 증가 또는 감소집단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자본화가 이익조정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는지 분석하였고 직전년도 대비 연구개발비의 자본화 증가가 이익의 상향조정을 의도하는지 조사하였다. 실증결과, 연구개발비의 자본화가 이익의 상향조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연구개발비 비용의 증가와 재량적 발생액과는 음(-)의 상관관계, 연구개발비 자본화의 증가는 재량적 발생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이익조정수단으로 이용됨을 제시하였다. 이상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연구개발비를 통한 이익조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배준호 등(2014)의 연구에서는 성장기의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쇠퇴기의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비용화를 통해 이익을 하향조정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2. 공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이중호(2007)는 공기업에 대한 지배구조에 따른 요인을 변수로 하여 공기업의 이익조정 대응값인 재량적 발생액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사외이사 비율은 이익조정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지원율이 높은 공기업일수록 이익조정이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율이 높은만큼 정부의 감시·통제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민간부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 공기업의 규모와 부채비율은 이익조정액과 양(+)¹⁾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수연(2009)은 순이익 등의 재무적 성과 등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이는 임원들의 인사 및 보수기준을 결정하는데 지배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기업의 임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익조정 할 유인이 있다고 보고, 이익조정과 공기업 임원들 보수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이익조정 대응치로 사용된 재량적 발생액과 기관장의 총 보수 및 간접보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²⁾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차진화(2011)는 보고이익의 횡단면적 분포도 상의 증거부호 변화율을 이용하여 국내공공기관들의 이익조정 여부를 분석하였고, 적자 회피를 위한 이익조정 행위가 공공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전기 당기순손실 보고 여부 등을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익조정행위에 대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윤성만·이강영(2012)는 적자회피 이익조정을 종속변수로 하여 공공기관의 손실보전제도 적용여부와 지배구조의 특성요인을 주요 변수요인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은 손실지원을 받는 기업보다 적자회피 이익조정을 하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사회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러한 이익조정의 경향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김민경(2013)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이익조정을 비교한 연구에서 자산규모가 비슷한 공기업과 사기업끼리 일대일로 매칭하여 비교하여 본 결과 공기업의 이익조정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박미희(2013)은 공기업의 특성요인과 이익유연화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공기업의 상장 여부 및 민영화 예정여부가 이익유연화와는 통계적으로 음(-)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이해관계자들이 높은 품질의 회계정보 요구와 제도적 감시로 인해서 이익유연화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주희 등(2013)은 경영평가지표의 특성(이익관련지표의 수와 가중치)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이익관련지표의 수와 가중치는 이익조정의 대응치인 재량적 발생액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익관련지표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익관련지표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윤석만(2013)은 공공기관의 이익조정행위에 경영성과보상유인과 세금유인의 작용 여부를 연구하여 경영평가 성과급의 크기와 적자회피 이익조정 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조세부담 수준이 낮을수록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제3장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설계

제1절 연구개요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공기업의 통제자로서 공기업과 수직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성과를 통제하거나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한다(Ahoroni, 1981). 공기업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 공기업 설립 목적의 달성, 공기업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영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적인 관리수단으로 운영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평가는 공기업 경영자의 금전적 보상을 결정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 보통 재무적 성과(주가와 회계적 성과 등)가 좋을 수록 그에 대한 보상도 보다 많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익을 조작하여 경영성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익조정의 유인을 가지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경영평가 결과가 경영자 인사에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 경영자의 임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차기년도 예산의 증감은 물론 해당 공기업의 성과급 결정에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영자의 성과급의 지급률을 결정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경영자의 기본급 삭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는 경영평가 성과측정지표에 포함된 경영활동에는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지

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Watts(2003)는 경영자의 성과지표가 회계이익과 연계되어 있을 때 경영자들은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 중에서는 안태식 등(2009)이 공기업 경영자는 성과지표들 중 사장 평가에만 사용되는 평가지표 보다는 자신의 보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관평가와 사장 평가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성과지표에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경영자는 성과지표의 항목들이 자신의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보상이 더 높은 지표에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 즉 성과지표의 종류와 가중치에 따라 경영자의 노력의 투입 정도와 배분의 의사결정, 그리고 회계이익의 보고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익관련지표의 수와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이익관련지표의 중요성이 커지게 될 것이고 경영자는 자신의 보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평가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익조정 유인의 가능성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제도라는 시스템 하에서 경영평가지표 중 이익과 관련된 지표의 비중이 실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 방법으로 경영자의 경영의사결정을 통한 이익조정 방법 중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부분을 분석하여 이익관련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가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공기업은 크게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 있어서 성과측정지표 및 가중치의 기준이 공기업과 상이하고 준정부기관에 따라 다른 경영형태(위탁집행형, 연금형, 정책금융형, 사업기금형)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무제표 전체가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김선구 등(2007)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당기 연구개발비는 당기의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전기·전전기 연구개발비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당기의 유형자산, 광고선전비, 기업규모는 모두 당기의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른 요소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당기의 성과에 영향이 적고, 그 효과가 1~2년 후에 나타나며, 또한 자연독점의 위치에 있는 공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의 필요성이 적어지므로 연구개발비가 이익조정 선호수단으로 쓰여질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평가 지표 중 이익 관련 계량지표의 비중이 연구개발비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이익관련지표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연구개발비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유형을 연구개발비의 투자 비율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이 상위 50%인 기업군과 하위 50%인 기업군으로 나누어 연구개발비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곽태완 등(2013)은 첨단산업일수록, 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연구개발비가 많은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성기 등(2010)에 따르면 첨단산업의 연구개발비 자본화 수준이 비첨단산업의 2~3배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를 통한 이익조정이 보다 쉬울 것이므로, 공기업의 경우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군이 투자 비율이 낮은 기업군보다 연구개발비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가설 2. 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이익관련지표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군이 연구개발비 비중이 낮은 기업군보다 연구개발비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증가할 것이다.

제3절 변수 정의

1. 종속변수 : 연구개발비 자산화율

기업의 기술개발(R&D)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부서(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위탁연구개발비 포함)로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항목으로 재무제표에서의 계정과목 및 해당 금액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재무상태표 상의 ‘무형자산의 개발비’, 포괄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기타원가명세서 상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를 통한 이익조정에 대한 선행연구(배준호 등 2014)에서도 연구개발비 자산화 금액에 대해서 위와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상기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하며, 종속변수는 연구개발비 총액 중에서 자산화한 금액의 비중인 연구개발비 자산화율이며, 이는 이익조정을 나타내는 대용변수이다.

※ 연구개발비 자산화 금액 = 재무상태표의 당기말 연구개발비

자산 - 전기말 연구개발비 자산 + 개발비상각액

※ 연구개발비 총지출액 = 연구개발비 자산화금액 + (손익계산서 당기연구개발비용 + 제조원가명세서 당기 연구개발원가)

2. 독립변수 : 이익지표 비중

공공기관의 평가지표는 경영관리, 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주별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내용

평가범주	주요평가내용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업무효율,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기획재정부, 2014년 경영평가 편람)

위에서 경영관리 항목은 공통적으로 모든 기관이 적용받는 성과 지표이며, 주요사업 항목은 각 기관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독립변수는 이익과 관련된 지표의 비중으로 경영평가지표상의 이익과 관련된 지표, 즉, 공통평가 지표인 경영관리 범주의 재무관련 지표 가중치 및 각 기관별 고유사업 범주에서의 재무관련 지표 가중치를 더한 값으로 하고자 한다. 공기업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공기업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중장기제출		非제출기관	
		비계량	계량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 전략기획 - 국민평가 - 정부권장정책	2	4 5	2	5 5
	2. 업무효율		8		8
	3.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2		3	
	4.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 재무예산 관리 - 자구노력 이행성과 - 재무예산 성과 - 계량관리 업무비	6 3	6(4) 2	6	6 3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보수 및 복리후생 - 총인건비 인상률 - 노사관리	6 3	3	6 3	3
	소 계	22	28	20	30
주요사업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 를 종합평가	13	28	20	30
합 계		35	65	35	65

(기획재정부, 2014년 경영평가 편람)

제4절 연구모형의 설계

가설 1은 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서 성과측정지표의 이익관련 특성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로 공기업 경영평가의 성과측정지표 중 이익관련지표의 중요성이 공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경영자의 이익조정 항목 중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실적 결과인 연구개발비 항목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며, 이는 연구개발비가 다른 요소에 비해 당기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자연독점의 위치에 있는 공기업 특성상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의 필요성이 낮아질 것이므로 이익조정의 선호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가설 1의 검증모형

$$\text{RD Cap}_{it} = \alpha + \beta_1 \text{EW}_{it} + \beta_2 \text{SIZE}_{it} + \beta_3 \text{LEV}_{it} + \beta_4 \text{ROA}_{it} + \beta_5 \text{CHR}_{it} + \varepsilon$$

가설 1의 검증모형의 변수정의는 아래 [표 4]와 같으며, 사장교체 여부의 기준월을 전년도 7월로 한 것은 새로 선임된 사장의 임기가 7월 이전부터 시작이 되면 당해연도의 경영평가 결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선임된 연도가 아닌 선임된 연도의 7월 이전 또는 이후를

사장교체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표 4] 가설 1의 검증모형의 변수 정의

구분	변수명	정의	예상 부호	측정방법
종속 변수	RD Cap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	+	연구개발비 자산화 금액 / 연구개발비 총액
독립 변수	EW	이익지표 가중치	+	이익지표 가중치 / 총가중치
통제 변수	SIZE LEV ROA CHR	기업규모 레버리지 비율 총자산 수익률 사장교체	+ - + +	로그 당기 총자산 당기 부채 / 총자산 순이익 / 총자산 사장교체시 1, 아닐시 0 (전년도 7월 ~ 당해년 6월)

가설 2에 대한 모형은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상위 50% 기업군과 하위 50% 기업군으로 나누어 두 기업군간의 연구개발비를 이용한 이익조정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를 통한 이익조정이 보다 쉬울 것이므로,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상위 50%인 기업군이 그렇지 않은 기업군에 비해서 이익조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의 검증모형

$$RD\ Cap_{it} = \alpha + \beta_1 IND_{it} + \beta_2 EW_{it} + \beta_3 (IND \times EW)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beta_6 ROA_{it} + \beta_7 CHR_{it} + \varepsilon$$

가설 2의 검증모형의 변수정의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가설 2의 검증모형의 변수 정의

구분	변수명	정의	예상 부호	측정방법
종속 변수	RD Cap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	+	연구개발비 자산화 금액 / 연구개발비 총액
독립 변수	EW IND	이익지표 가중치 공기업군 분류	+ +	이익지표 가중치 / 총가중치 연구개발비 비중 상위 50% 기업군 1, 하위 50% 기업군 0
통제 변수	SIZE LEV ROA CHR	기업규모 레버리지 비율 총자산 수익률 사장교체	+ - + +	로그 당기 총자산 당기 부채 / 총자산 순이익 / 총자산 사장교체시 1, 아닐시 0 (전년도 7월 ~ 당해년 6월)

제5절 데이터 수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공기업은 크게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기업의 범위는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기관이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 있어서 성과측정지표 및 가중치의 기준이 공기업과 상이하고 준정부기관에 따라 다른 경영형태(위탁집행형, 연금형, 정책금융형, 사업기금형)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무제표 전체가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공기업의 재무자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인 알리오와 각 기업의 감사보고서 자료와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자료에서 수집하며, 경영평가 관련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편람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수집한다. 또한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인 알리오와 각 기업에서 공시하는 재무지표는 최근 5개년만 공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데이터 수집기간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로 한다. 참고로, 연구대상 기간은 2010년에서 2014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위에서 분류한 시장형, 준시장

형 공기업은 당시의 분류로는 공기업 I 과 공기업 II로 분류하고 있다.

[표 6]은 연구대상인 공기업 중에서 차감부분을 제외한 최종표본수를 구한 것이다.

[표 6] 표본 데이터

표본기관	연구기간	표본데이터	차감	최종표본수
30개	5개년 (2010~2014년)	129개	31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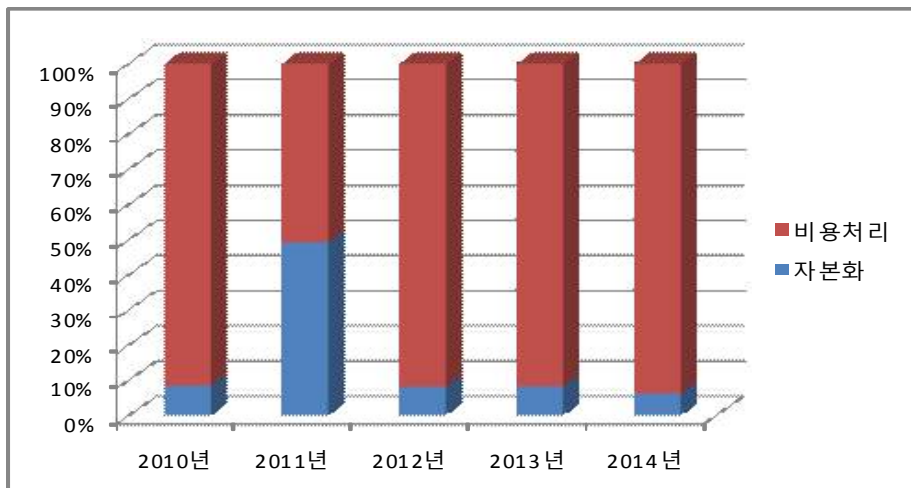
※ 표본데이터 차감 사유

1. 연구기간 중 신설되어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 신규 편입되어 편입 이전 데이터 없음
2. 재무지표상 연구개발비 자본화 금액 실적이 없음

아래 [그림 2]는 공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비중을 비용처리와 자본화 비율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구개발비를 살펴보았으며, 그 중 2011년의 연구개발비 자본화 비중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주요정책 및 사업을 해당 공기업이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주요정책 수행이나 경영평가에 가점 등을 주는 항목, 또는 이와 반대로 경영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용발생 항목 등을 더 자세히 분

류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각 공기업이 공개하는 재무제표 상의 회계적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림 2] 공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비중



제4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기술통계

[표 7]은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율(RD Cap), 이익지표 가중치 비율(EW), 공기업군 분류(IND), 기업규모(SIZE), 레버리지 비율(LEV), 총자산 수익률(ROA), 사장교체(CHR)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표 7] 기술통계량

구분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RD Cap	98	0.418	0.496	0.000	1.000
독립변수	EW	98	0.333	0.077	0.230	0.570
	IND	98	0.500	0.502	0.000	1.000
통제변수	SIZE	98	15.875	1.761	12.310	18.971
	LEV	98	0.586	0.411	0.087	2.184
	ROA	98	0.011	0.076	-0.196	0.575
	CHR	98	0.245	0.432	0.000	1.000

주 : RD Cap =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

(연구개발비 자산화금액/연구개발비 총액)

EW = 이익지표 가중치 비율 (이익지표 가중치 / 지표 총가중치)

IND = 공기업군 분류 (연구개발비 비중 상위 50% 기업군 1,
하위 50% 기업군 0)

SIZE = 기업규모 (로그 당기 총자산)

LEV = 레버리지 비율 (당기 부채 / 총자산)

ROA = 총자산 수익률 (순이익 / 총자산)

CHR = 사장교체 여부 (사장교체시 1, 아닐시 0)

종속변수인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율(RD Cap)의 평균은 0.418, 표준편차는 0.496이다. 이는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이 평균적으로 연구개발비 총액의 약 41.8% 정도임을 의미한다. 최소값이 0.000이고 최대값이 1.000임으로 공기업별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연구개발비 전체 금액이 자산화 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변수인 이익지표 가중치 비율은(EW) 평균이 0.333으로 평가요소에서의 재무적 비중이 33.3%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최소 23%에서 최대 57%까지 분포하고 있다.

통제변수로 레버리지 비율(LEV)은 평균 0.586, 최소값 0.087, 최대값 2.184이다. 레버리지 비율이 1이 넘는 경우 자본잠식 상태를 의미하므로 표본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자본이 잠식된 공기업부터 레버리지가 10% 미만인 공기업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자산 수익률(ROA)은 평균 0.011, 최소값 -0.196, 최대값 0.575이다. 평균적으로 총자산 대비 1.1%의 이익을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2절 상관관계 분석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은 각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이며, 상관계수 값은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양과 음의 부호는 두 변수간의 관계의 방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계수의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뚜렷한 선형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0.7이상인 경우 높은 선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종속변수인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RD Cap)은 기업규모(SIZE)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변수들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0.644 ~ 0.441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표 8]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RD Cap	EW	IND	SIZE	LEV	ROA	CHR
RD Cap	1						
EW	-0.106 0.301	1					
IND	-0.334 0.001	0.441 0.000	1				
SIZE	0.508 0.000	-0.235 0.020	-0.644 0.000	1			
LEV	-0.067 0.510	-0.010 0.919	0.075 0.464	-0.021 0.837	1		
ROA	-0.134 0.187	0.226 0.025	0.093 0.361	-0.139 0.172	-0.496 0.000	1	
CHR	-0.002 0.985	0.014 0.894	-0.083 0.414	0.050 0.628	0.202 0.046	-0.203 0.045	1

주 : RD Cap =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

(연구개발비 자산화금액/연구개발비 총액)

EW = 이익지표 가중치 비율 (이익지표 가중치 / 지표 총가중치)

IND = 공기업군 분류 (연구개발비 비중 상위 50% 기업군 1,
하위 50% 기업군 0)

SIZE = 기업규모 (로그 당기 총자산)

LEV = 레버리지 비율 (당기 부채 / 총자산)

ROA = 총자산 수익률 (순이익 / 총자산)

CHR = 사장교체 여부 (사장교체시 1, 아닐시 0)

제3절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이용되는 변수들의 범주인 경영평가 및 공기업 유형 요인, 기업의 재무적 요인, 경영자 교체 요인에 따라서 4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모형①은 경영평가의 이익지표의 가중치 요인 및 공기업 유형이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고, 모형②는 모형①에 기업의 재무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모형③은 모형①에 경영자 교체여부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고, 모형④는 모든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회귀분석에서 모형의 선택은 보통 결정계수(R^2)를 이용하지만, 결정계수의 비교는 한 모형이 다른 모형의 변수에 모두 포함되고 (nested) 관측치가 같을 때만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같이 두 모형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결국 자료로 인하여 분석에 이용된 개체 수가 다른 경우 R^2 값의 차이로 모형 간 비교를 할 수 없다. 내재된 관계가 아닌 모형을 비교할 때는 R^2 비교 대신 정보 지수(information criterion)을 이용한다. 많이 사용되는 지수로는 Akaike 정보지수(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 AIC, Akaike, 1973)와 베이저안 정보지수(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 BIC,

Raftery, 1995)가 있다(홍세희, 2005). *AIC*는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수로 경쟁모형이 여러 개인 경우 *AIC*가 가장 작은 모형을 선택한다. 분석 결과 가설 1에서는 모형②와 모형④가 유의미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형②의 *AIC*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에서는 모형①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모형을 보이고 있으며, 모형①의 *AIC*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① 및 모형②는 모형④와 관측수가 같고, *AIC* 차이가 크지 않으며, 모형④에 내재된 모형이다. 이를 고려하면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④를 이용해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가설 1의 검증 결과

$$\text{모형① : RD Cap}_{it} = \alpha + \beta_1 \text{EW}_{it} + \varepsilon$$

$$\text{모형② : RD Cap}_{it} = \alpha + \beta_1 \text{EW}_{it} + \beta_2 \text{SIZE}_{it} + \beta_3 \text{LEV}_{it} + \beta_4 \text{ROA}_{it} + \varepsilon$$

$$\text{모형③ : RD Cap}_{it} = \alpha + \beta_1 \text{EW}_{it} + \beta_2 \text{CHR}_{it} + \varepsilon$$

$$\text{모형④ : RD Cap}_{it} = \alpha + \beta_1 \text{EW}_{it} + \beta_2 \text{SIZE}_{it} + \beta_3 \text{LEV}_{it} + \beta_4 \text{ROA}_{it} + \beta_5 \text{CHR}_{it} + \varepsilon$$

모형②의 *AIC*가 가장 작지만 모형④ *AIC*와 값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모형④가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이므로 모형④에 대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모형④를 살펴보면 독립변수 이익지표 가중치(EW)와 종속변수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RD Cap)

과 유의수준 5%에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규모(SIZE)와 레버리지 비율(LEV)은 유의수준 5%에서 각각 양(+)의 관계 및 (-)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익지표 가중치 및 기업규모 크기가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비율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비록 유의미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사장교체 여부가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비율에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표 9] 다중회귀 분석결과 (가설1)

구분	모형①	모형②	모형③	모형④
EW	0.427	0.732*	0.425	0.895**
SIZE		3.953**		4.102**
LEV		-12.661*		-12.358**
ROA		13.352		11.935
CHR			-1.327	-1.824
상수	22.430**	25.155	21.457**	26.134
관측수	98	98	98	98
AIC	915.132	912.342	917.126	913.496

2) 가설 2의 검증 결과

$$\text{모형① : } RD\ Cap_{it} = \alpha + \beta_1 IND_{it} + \beta_2 EW_{it} + \beta_3 (IND \times EW)_{it} + \varepsilon$$

$$\text{모형② : } RD\ Cap_{it} = \alpha + \beta_1 IND_{it} + \beta_2 EW_{it} + \beta_3 (IND \times EW)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beta_6 ROA_{it} + \varepsilon$$

$$\text{모형③ : } RD\ Cap_{it} = \alpha + \beta_1 IND_{it} + \beta_2 EW_{it} + \beta_3 (IND \times EW)_{it} + \beta_4 CHR_{it} + \varepsilon$$

$$\text{모형④ : } RD\ Cap_{it} = \alpha + \beta_1 IND_{it} + \beta_2 EW_{it} + \beta_3 (IND \times EW)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beta_6 ROA_{it} + \beta_7 CHR_{it} + \varepsilon$$

가설 1의 결과와는 다르게 모형①의 AIC가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고, 모형④ AIC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값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모형④가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이므로 모형④에 대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모형④를 살펴보면 독립변수 이익지표 가중치(EW)와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에 따른 공기업군 분류(IND)는 종속변수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RD Cap)과 유의수준 5%, 10%에서 각각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규모(SIZE)는 유의수준 10%에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레버리지 비율(LEV)은 유의수준 10%에서 (-)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유의미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가설 1에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사장교체 여부가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율에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이익지표 가중치(EW)와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에 따른 공기업군 분류(IND)가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RD Cap)에 유

의적인 결과를 보여, 이익관련 지표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연구개발비 비중이 큰 기업군의 연구개발비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설 2가 지지되었다.

[표 10] 다중회귀 분석결과 (가설2)

구분	모형①	모형②	모형③	모형④
EW	0.832	1.021**	0.878	1.153**
IND	2.414	4.753*	1.725	2.923*
IND*EW	0.905	1.275*	0.925	1.127*
SIZE		1.837*		1.725*
LEV		-11.906*		-11.252*
ROA		42.787*		45.512*
CHR			-3.923	-4.228
상수	3.198	32.723	3.259	33.741
관측수	98	98	98	98
AIC	900.125	901.238	901.755	902.107

제5장 결 론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난 수십 년간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영평가의 성과측정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표들로 구성되어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다양한 공기업들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하고자 지속적인 개선을 해왔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에서 재무적인 이익이 절대적인 성과측정치는 될 수 없지만 공익성과 수익성, 자율성을 추구하는 다면적인 공기업의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이익관련지표들이 성과의 측정치로 불가피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 경영평가의 결과는 공기업 경영자의 직·간접적인 보상을 결정하는데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기업 경영자는 성과측정치표상의 산출결과를 조정하여 경영평가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여 자신의 보상을 최대화하고 현재 직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경영평가에서 이익관련지표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경영자가 재량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연구개발비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의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연도 동안 98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익관련지표의 중요성은 개별 공기업의 전체 성과지표 중 이익관련지표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경영

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측정부분은 연구개발비의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연구개발비의 자산화)으로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설 1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을 살펴보면 이익지표 가중치(EW)가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RD Cap)에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익관련 지표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연구개발비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또한, 또 다른 독립변수인 연구개발비 비중에 따른 공기업 유형(IND)이 종속변수인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RD Ca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연구개발비 비중 상위 50% 공기업군이 하위 50% 공기업군보다 연구개발비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 가설 2에 대한 지지도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록 유의하지는 않지만 경영자의 교체가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RD Cap)에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경영자가 공기업에 신입으로 선임되면서 해당 공기업에 대한 경영과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익조정 등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고, 경영평가 결과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자 자신이 받을 보상에도 덜 민감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유의적인 통계분석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공기업이 가진 공공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기업처럼 단순하게 재무적인 성과로만 측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기업 경영평가의 성과측정은 재무적

인 성과 이외에도 여러 분야의 성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익관련 지표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서 이익관련 지표는 경영자가 재량적인 이익조정을 시행한 다 하더라도 경영평가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지표로 구성해야 경영자가 사적이익 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중에서도 과거연도의 재무자료 부족으로 제한적인 공기업 및 비교적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공기업 이외에도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량적 발생액의 행태는 산업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업별·연도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표본은 한정된 공기업이고, 공기업별로 산업별 특성이 매우 상이하어, 재무지표상의 재량적 발생액에 추정오차가 개입되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이익관련 지표의 향상이 공기업 경영평가결과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평가점수를 기반으로 하여 평가 등급으로 산정되기에 이익관련지표의 실적 향상이 경영평가의 등급향상에 일대일 대응의 관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이익관련지표의 향상은 경영평가등급의 향상을 가져올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등급의 향상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점은 공기업 자료를 이용한 성과지표와 경영자 보상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연구개발비 항목은 재무지표상의 실적만을 집계한 것으로 당초 예산 대비 변화량을 측정할 수 없었다. 이는 알리오나 각 기업에서 제공하는 재무지표에서는 실적만을 공시하고 있으며 예산내역은 공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전년도에 계획된 연구개발비 항목이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집행율을 측정할 수 있다면 집행율과 이익지표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이익조정에 관한 후속연구에서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곽채기. 2003. 정부투자기관의 비효율성 통제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역할 및 운영성과. 공기업논총(제15권 제1호): 49-91.
- 김경호·박종일. 1999. 기업부실화 이전의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 회계저널(제8권 제1호):259-284.
- 김문태·전성일·고대영. 2005. 연구개발비의 재량적 회계선택을 통한 이익조정의 고찰. 한국회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9
- 김산. 2014. 공기업 성과평가시스템에서의 톱니현상과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선구, 전성일, 고대영. 2005. 연구개발비 투자가 기업성과간에 미치는 다기간 효과분석. 회계연구 12(3): 1-31
- 김승용. 1996. 보고이익에 대한 고려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7: 19-32
- 라영재·윤태범. 201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분석과 새로운 모형 개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5-180
- 박용기·송영렬. 2007. 공기업 경영평가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제13권). 동국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 한국공기업학회.
- 변종국. 2010. 시장기준을 적용한 공기업 경영평가 모형, 경제연구 (제28권): 143-170.
- 안태식·최연식·서민정. 2009. 다차원적 업무하에서 CEO의 노력배분. 회계저널(제18권 제2호): 313-342.
- 윤태범·김효경·유효정. 2010.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변천과정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이남령 · 최원욱. 2010. 연구개발비를 통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물 거래 이익조정의 대체관계에 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1호.
- 이상완 · 박경원 · 김순기. 2011. 성과측정시스템의 이용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성과측정지표의 다양성과 조직학습의 역할. 관리회계연구(제11권 제1호): 37-66.
- 이상철. 2010. 지방공기업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변화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지하철 공사의 경영성과변화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제21권): 27-50.
- 정주희 · 유정민 · 윤대희. 2013. 공기업 성과측정지표의 특성과 이익 조정에 관한 연구. 관리회계연구(제13권 제1호)
- 최광현. 1996.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11: 193-222.
- Baber, W.R., Fairfield, P.M., & Haggard, J.A. 1992. The Effect of Concern about Reported Income on Discretionary Spending Decisions : The Cas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Accounting Review, 66(4): 818-829
- Cohen, D. A., and P. Zarowin. 2010. Accrual-Based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Around Seasoned Equity Offer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1): 1-29.
- Dechow, P. M., and D. J. Skinner. 2000. Earnings Management: Reconciling the Views of Accounting Academics, Practitioners, and Regulators. Accounting Horizons 14(2): 235-250.

- Gunny, K. 2005.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Real Earnings Management.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Healy, P. M. 1985. The Effect of Bonus Schemes on Accounting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7(1-3): 85-107.
- Watts R., and J. Zimmerman. 1986. Positive Accounting Theory. Englewood Cliffs,NJ: Prentice- Hall.
- Zang, A. 2006. Evidence on the Trade Off between Real Manipulation and Accrual Manipulation. Working Paper. University of Rochester

기획재정부. 2010 ~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Abstract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Earnings Management in Public Enterprises

Kim Tae Hy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a CEO's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using R&D cost data of public enterprises. The CEO's compensation in public enterprises is determined by the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conducted by the government. It means that there is strong possibility to manipulate his or her performances in the evaluation system.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search of the financial data of 30 public enterprises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item from 2010 to 2014.

The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weight of earnings related measure and the earnings management. Discretionary accrual is used as a proxy for earnings management to get a better grade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u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earnings management in the public enterprises can be affected by the structure and nature of the performance measure.

Key Words : Public enterprise, Earnings management,
Discretionary accruals, Performance evaluation

Student Number : 2014-23610